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3년 교회표어: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3:14)

- ◎ **예고:** 교회창립 14주년 감사예배와 임직식을 갖습니다.
일시: 2013년 7월 14일(주일) 오후 2시, 장소 교회 본당(시간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 ◎ **수련회:** 찬양대원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시: 6월 15일 (토) 시간: 오전 9-오후6시 장소: 감람산기도원
- ◎ **협조:** 바누아투 단기 선교를 위한 작은 게라지 세일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물품들을 기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 5월 26일(주)~6월 16일(주일) 담당: 이정인 집사, 김승훈 간사
- ◎ **훈련:** 이번 주 임직자 훈련은 “선배들과의 대화”입니다.
- ◎ **선교학교:** 바누아투 선교(7월 5일~7월 12일, 7박 8일)를 위한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 **감사:** 바누아트 선교 후원헌금(300불)을 한 4남선교회와 선교 학교에 저녁을 준비해주신 성도, 오늘 점심 준비해주신 베트남 공동체, 게라지 세일에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6월 새벽 기도회 본문

7일: 행 2:14~21 모든 사람에게 열린 꿈의 기회 14일: 행 4:23~37 꺼뜨리려 할수록 살아나는 신앙의 불꽃
21일: 행 7:17~36 주권자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28일: 행 9:10~22 하나님 손에 잡힌 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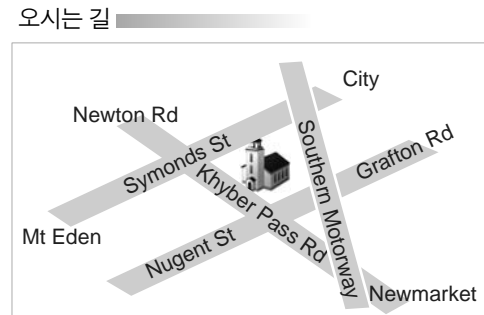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중국: 김강한목사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밀알장애우 봉사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2013년 6월 9일

15권 23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



2013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 3:14)

“나,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이야”

약 석 달 전 어느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 순서인 한 성도에게 전화했습니다. 본인이 기도 차례임을 알고 계신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기도 차례임을 알고 계시죠?” 제가 물었고 “예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10분 전에 오셔서 준비하세요.” 말씀드리니 이내 “약속이 있다”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기도 차례임을 아시면서 약속을 잡으셨습니까?” 했더니 “기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약속을 잡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의아해하는 저에게 자초지종 설명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데 도저히 대표 기도를 할 자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예배를 안 가기 그렇고 차라리 약속을 잡아 나가버리자 그래야 자신에도 하나님에게도 덜 미안할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기도 내용을 적어 오셔서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적어서 하기는 하나님께 죄송할뿐더러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열심히 믿음을 키워서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통화 후에 곰곰이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기도 차례인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약속을 정한 것은 분명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안타까움과 함께 충분히 이해와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신앙상태에 머무르거나 체념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신앙을 성장시키겠다는 마음은 분명 그 성도의 신앙의 자존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자존심이 상할 때를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분해 하기도, 억울해 하기도, 자존심 상하게 한 대상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해 우리 신앙의 자존심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어쩌면 별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자존심은 없어도 별로 분냄(?)도없이 얼버무려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신앙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세워봄이 어떨겠습니까? 집사님 이제는 기도하실 수 있겠지요? - 이태한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뉴질랜드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 - 369-5077 Ph: 09-475-6312 PO Box 8298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미가 4:2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19장 다함께
※ 성서교육	43. 시편 99편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91장 다함께
대표기도	박병민 집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16:16~18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예수의 이름으로 이태한 목사
찬송	542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다함께
※ 축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 6월 교회알기

월삭 기도회:
6월 1일(토)
성찬주일:
6월 23일(주일)
선교 파송 주일 및
향존 직분자 기도회:
6월 30일(주일)

◎ 6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추미선/이경자
새신자 안내:
김수원/최희숙
주차안내:
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기도: 김승훈 간사
다음 주일 1부: 정덕수 장로
다음 주일 2부: 김광영 집사
6월 19일 수요일기도: 민선희 집사
6월 19일 애찬기도: 양윤주 집사
6월 23일 1부: 이광희 장로
6월 23일 2부: 박병민 집사

주일2부예배 (15:00)

인도: 심창진 목사
찬양 / 다함께
기도 / 세일라 자매
성경봉독 / 행 2:37~47
설교 / 하나님의 사역 / 심창진 목사
찬송 / 힘들고 지쳐
헌금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축도 / 심창진 목사

수요일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단
기도 / 손조훈 집사
성경 / 룻 1:1~5
설교 / 흥년이 드니라 / 이태한 목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406장
주기도 / 다함께

금주의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위해

성령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전 이전 계획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말씀에 능력이 임하도록, 가정의 어려움과 육적인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평강과 회복을 위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2. 뉴질랜드와 통가를 위해

치솟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통가에서 선교하는 박종균 목사(통가 한우리 교회)와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통가 사람들이 더 적극적인 생활과 비전을 가지도록, 물량공세로 들어오는 모르몬교에 그리스도인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갈보리 공동체는 각 나라를 이름으로 하여 공동체 구성원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공동체의 나라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살피고 기도로 선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일에 함께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가에 대하여 (사회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지도에서 통가를 찾아보면 점들로 나타나듯이 나라 자체가 17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치는 피지, 사모아의 오른쪽에 남북으로 길게 분포되어 섬들은 4개의 그룹으로 나뉘며 수도는 누쿠알로파입니다.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이며, 영어와 통가어를 사용하며 왕이 통치하는 왕국이며, 뉴질랜드의 원조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통가는 왕, 귀족, 마타푸레(왕족이나 귀족의 자손), 평민의 4계층으로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으며 국토는 정부, 왕, 왕족과 귀족들이 소유하며, 평민이 토지를 소유하는 예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특이합니다. 단지 남자가 16세가 되면 정부 토지나 귀족 토지 중 3.4ha의 농지와 1,600m²의 택지를 차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부다처제였으나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오늘날에는 일부일처제가 지배적입니다. 풍부한 예술과 공예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주요 공예로는 코코넛 잎으로 만드는 바구니 짜기, 고대의 성스러운 이미지를 조각하는 목각, 여성들의 장신구 그리고 뽕나무 껍질로 만드는 타파옷감은 통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공하는 과정이 많은 시간과 숙련된 기술을 요합니다.

축제는 통가 생활양식의 주요한 부분으로 다양한 음식과 큰 규모로 인해 태평양 열도에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찢 돼지고기, 새끼돼지, 물고기, 가재, 소고기, 문어, 여러 종류의 열대과일을 코코넛 잎으로 엮은 긴 그릇에 담는데 한 번에 30인분 정도까지도 담을 수 있으며 우무(Umu)라고 부르는 땅속의 오븐에서 익히거나 불에 굽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풍부한 나라로서, 작은 그룹이나 혹은 수천 명이 함께 부르는 노래는 아주 유명하며. 라칼라카는 통가의 전통춤인데 12명 혹은 수백 명이 어디에서나 출 수 있습니다.

통가의 국기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바탕으로 하며 국기의 빨간 부분은 예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